

광주·전남 최근 3년 사상자 7000명 육박

교통사고 줄입시다

광주일보 공익 캠페인

<중> 심각한 어린이 교통사고

광주·전남 지역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광주·전남에서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어린이는 총 7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역시 매년 증가하면서 교통전문가들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아시절부터 체험형 교통교육을 의무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안에 국당 조원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취학전 아동 및 학생 교통사고 사상자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광주·전남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취학 전 아동과 학생은 모두 6879명으로 집계됐다.

스쿨존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
체험형 교통교육 확대·의무화
보호구역 고원식 횡단보도 등
근본적인 예방 대책 필요

이중 사망자는 49명으로 광주 18명, 전남 31명이다. 연령별로는 고등학생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취학전 아동 16명, 초등학생 10명, 중학생 5명 순이었다. 부상자는 총 6830명이었다.

광주·전남지역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국(414명)의 11.8%, 부상자는 전국(7만5089명)의 9.0%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광주에서만 교통사고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 5명이 가족의 품을 떠났다. 부상자도 최근 3년 새 ▲2015년 541명 ▲2016년 558명 ▲2017년 512명 등 총 1611명이었다.

전남은 더 심각했다. 지난 2015년 7명,

지난 2016년 5명, 지난 2017년 7명 등 총 19명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부상자도 ▲2015년 838명 ▲2016년 705명 ▲2017년 693명 등 총 2236명에 달했다.

교통 전문가들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벨트 착용 교육 등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올해 광주시, 한국교통안전공단 호남본부, 광주지방경찰청 등 11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교통사고 예방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고원식 횡단보도(인도와 횡단보도 높이를 맞춰 이동 약자들을 배려한 횡단보도) 설치와 학교를 중심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추진, 자치구 별 어린이 교통안전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현재 광주에서 운영중인 교통안전체험 시설은 광주시청 1층에 있는 광주안전체험

관과 지난 2015년 북구 우치공원 내 드라이빙 스쿨,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이 운영하고 있는 광주어린이교통공원 등 3곳이다.

광주시청 1층에 있는 광주 안전체험관은 30분(30명 기준) 정도의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무료 시설이다. 아이들이 직접 신호등을 보고 안전하게 걷는 방법과 안전벨트를 맨 상태로 급정거해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은 무료시설의 경우 조기 마감 등을 이유로, 유료시설의 경우 예산 부족(1인 6000원~1만5000원) 등의 이유로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한주 광주교통문화연수원 교육과장은 "성인들의 경우 처벌과 계도를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을 바꿀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면서 "유치원때부터 체험활동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심어주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현경 기자 young@kwangju.co.kr



낙엽 모아 재활용 합니다 13일 광주 북구청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중흥동 도에서 낙엽을 퇴비로 재활용하기 위해 수거하고 있다. 북구는 수거된 낙엽을 농가나 농장에 지원해 매년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수험표·신분증 챙기고 전자제품 놓고 가세요

내일 수능...수험생 유의사항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4일 예비소집을 마친 수험생들은 잠들기 전 내일 시험장에 가져갈 물품을 꼼꼼하게 정리해야 한다. 자칫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물품을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필수 지참물을 챙기지 않을 경우 응시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필수 지참물은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단 2가지다.

점심시간 외출이 금지되므로 도시락을 챙겨가야 한다. 수험표 분실에 대비해 증명사진 1장을 챙겨가는 것도 잊지 말자. 필수 지참물인 수험표를 잃어버리더라도 응

시원서 사진을 가지고 시험관리본부로 가면 본인 확인 후 수험표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은 일정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전자담배,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블루투스 기기 등을 가져가선 안 된다. 각종 수험교재, 투명종이, 개인 연습장, 개인 사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도 휴대해선 안 되는 물건이다. 깜빡 잊고 시험장에 가져갔다면, 당황하지 말고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교시 시작 이후 수험생이 반입 금지품을 옷이나 가방, 책상서랍 속에 휴대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되기 때문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20명 위촉

인원 13명 늘어...임기 2년

광주시교육청은 13일 제4기 청렴 시민감사관 20명을 위촉했다.

시민감사관에는 교수, 변호사, 회계사, 경찰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이전(3기) 시민감사관 7명보다 13명 규모가 확대된 게 특징이다. 이들의 임기는 이달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2년이다. 한 차례 연임 가능하다.

시민감사관은 독립적 지위를 갖고 시교육청(산하기관과 학교포함)이 시행 중인 교육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평가하는 업무를 맡는다. 불합리한 제도·관행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부조리, 사회적 이슈(언론보도, 집단민원, 부패·공익신고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교육감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도 직접 참여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6 달뜨기 12:31
해질 17:28 달짐 22:58

출퇴근길 쌀쌀해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5/16	보성	맑음	0/15
목포	맑음	6/16	순천	맑음	6/17
여수	맑음	11/16	영광	맑음	1/15
나주	맑음	0/17	진도	맑음	6/15
완도	맑음	7/17	전주	맑음	5/16
구례	맑음	1/16	군산	맑음	4/15
강진	맑음	3/17	남원	맑음	3/15
해남	맑음	0/16	흑산도	맑음	11/15
장성	맑음	1/16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먼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먼바다(동)	북~북동	1.0~2.0	북~북동	1.0~1.5
	먼바다(서)	북~북동	1.0~2.0	북동~동	1.0~1.5

◇생활지수

뇌졸중	보통
감기	보통
미세먼지	보통

◇물때

목표	간조	만조
	10:56	05:43
--:--	18:32	
06:09	00:12	
19:38	13:04	

◇주간 날씨

15(목)	16(금)	17(토)	18(일)	19(월)	20(화)	21(수)
5/17	7/16	8/14	5/13	4/12	2/12	3/13

젊을수록 유방암 재발 위험 높다...35세 미만 2.5배

한쪽 가슴에 유방암이 생긴 여성은 다른 쪽 가슴에도 암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크다. 그래서 요즘은 한쪽 유방에 암이 발견되면 나머지 한쪽 유방도 절제하는 '예방적 유방절제술'이 늘고 추세다. 그런데 젊은 유방암 환자일수록 향후 나머지 유방에도 암이 생길 위험이 크다는 국내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안세현·김희정 교수, 윤태인 전문의)이 '유방암 연구 및 치료'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35세 미만 유방암 환자는 35세 이상 여성에 견줘 다른 쪽에 유방암이 발생할 위험이 2.48배 높았다. 연구팀이 1989~2008년 사이 한쪽 유방암으로 수술받은 3260명을 35세 미만(652명)과 35세 이상(2608명)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다. /연합뉴스

13일 서울아산병원 유방외과 연구팀

광주환경운동연합 "라돈 측정기 빌려 드립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선착순으로 '라돈 측정기'를 시민들에게 빌려준다고 13일 밝혔다.

대여 기간은 1박 2일이며, 미리 전화 접수 후 순서에 따라 빌리면 된다. 대여료는 무료이나 보증금 1만원을 맡겨야 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라돈 측정기 보증금이 면제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보유한 라돈 측정기는 모두 6개다.

환경운동연합이 라돈 측정기 무료 대여 이벤트에 나선 이유는 침대 매트리스, 베개 등 침구류는 물론 기능성 속옷, 건강팔찌, 생리대, 욕실선반 등 시민 생활용품 전반에서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민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차례 측정을 위해 20만원에 달하는 측정기를 시민들이 구매하기 어려운 사정도 고려됐다.

환경운동연합은 라돈 측정기를 빌려가는 시민들이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자치단체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문의 062-514-2470.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수산물 온라인 판매 무료 컨설팅

쇼핑몰 상품 등록, 주문 발주, 고객 관리 등 통합 대행

- 지마켓, 옥션, 수협쇼핑, 우체국 등 판매 대행
- 대행으로 인한 추가 판매수수료 부담 해소 (여가 직접 일점 시와 동일한 수준의 판매수수료 부과)
- 상품문의, 배송문의, 고객 클레임 처리 전담 고객센터 운영

상품 촬영, 상세 페이지 무료 제작

- 인터넷 판매에 필요한 상품 이미지 무료 제작
- 제작된 이미지는 저작권 제한 없이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수산물 패키지 디자인소스 무료

- 국내산 수산물을 생산 또는 유통하는 어업인들에게 패키지 디자인 소스 무료 제공
- 피쉬디자인(www.fishdesign.co.kr) 홈페이지에서 패키지 디자인 소스 무료 다운로드
- 피쉬디자인 소스 활용하여 포장재 제작시 일부 제작비 지원

한국수산회에서는 전자상거래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온라인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 수산업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문의 한국수산회 소비촉진팀 T. 02-589-0633